2012년 1분기 베트남 한류 동향

베트남(하노이) 박윤미 통신원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올해 1월 중순부터 김태희, 송승헌 주연의 <마이 프린세스>가 베트남 SCTV17을 통해 방영됐다. 이에 앞서 1월 7일 주연 배우들은 하노이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현지 팬들과 만났다. 또한 송승헌은 베트남 국립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베트남 국립 어린이 재단' 기부금 모금 행사에 참석해 총 5만 달러(한화 약 5천 6백만 원)규모의 기부금 모금에 참여했다.

KBS 일일연속극 <집으로 가는 길>이 베트남 VTC9에서 3월 27일부터 방영되고 있다. "탤런트 이상우, 장신영, 윤여정, 박근형 등이 출연한 이 드라마는 힘든 일상을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드라마"라고 VTC9는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올해 특집기획으로 메콩강을 촬영한다. 총3부작으로 구성될 이번 촬영은 여러 국가들을 오가며 유유히 흘러가는 메콩강을 인문지리적 관점에서의 자연경관과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의 독특한 문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젊은이들을 소개한다.

올해 3월 23일부터 사전답사를 통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를 각각 방문하며, 메콩강 인근의 다양한 자연경관과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2. 영화 산업

베트남 내 영화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한국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추세다.

CGV는 지난해 말 호치민 메가스타 크레센트몰에 극장을 오픈한 데 이어 올해 1월 초에는 하노이 피코몰에 극장을 열었다. 또한 지난해 롯데시네마는 하노이에 롯데시네마 랜드마크관을 새로 오픈한 데 이어 2015년까지 18개 극장을 새롭게 열 계획이다.

CGV 또한 현재 9개 극장에서 2016년까지 24개 극장, 198개 스크린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로써 베트남에 엔터테인먼트 기반시설이 더욱 확충될 것으로 보이며, 침체된 영화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에는 <오싹한 연애>, <최종병기 활>,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헬로우 고스트>가 하노이 극장 개관기념으로 상영됐다. 현재는 박용우, 고아라 주연의 <파파>가 3월말 하노이에서 개봉돼 예매율 3위를 기록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3. 음악 산업

베트남 최대 음악정보 사이트 Zing mp3의 K-Pop 차트를 보면, 올해 1월에는 아이유의 '너랑 나'가 1위를 현아, 현승의 'Trouble Maker'가 2위를, 다시 아이유의 '비밀'이 3위를 차지했고 1월 한 달 간 순위변동이 없었다.

이어 2월 달에는 티아라의 'Lovey-Dovey'가 1위로 올라섰으며 다이나믹 듀오의 '거기서거기'가 2위를, 원티드의 'Like You'가 3위에 올랐다. 이 순위는 3월 4일까지 계속되었다.

3월 둘째 주에는 린의 '시간을 거슬러'와 세븐의 '내가 노래를 못해도'가 각각 1위와 2위를, FT아일랜드의 '지독하게'가 3위를 차지했다.

한 주 뒤에는 빅뱅의 'Bad Boy'와 'FANTASTIC BABY', 'BLUE'가 각각 1, 2, 3위에 올랐고, 이어 3월 다섯째 주부터는 2AM의 '너도 나처럼'이 1위를, 김수현의 '그대 한 사람'이 2위를 빅뱅의 'FANTASTIC BABY'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4. 공연/전시 산업

해당 사항 없음

5.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뽀로로 캐릭터를 이용한 완구, 학용품, 팬시용품 등이 베트남 아동용품 상점에서 팔리고 있다. 현지인들도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뽀로로'의 이름을 알 정도다. 또한 뽀로로 캐릭터를 이용한 도서나 워크북이 베트남어로 번역돼 시중에 유통되면서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6. 한스타일

해당 사항 없음

7. 반한류 사례

해당 사항 없음

8. 기타

2월 10일에 비나코 엔터, 예원, SBS 아트텍 등 3개 사로 구성된 비나코컨소시엄이 미국 할리우드를 제치고 베트남 정부의 초대형 영화 스튜디오 꼬로아(Co Loa) 종합 설계권을 따냈다.

한국 업체가 외국 스튜디오의 종합설계를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며 계약 금액은 한화 200억 원에 해당한다.